

## 물리치료를 받는 뇌졸중 환자의 발병 관계요인에 관한 조사연구

경희대학교 부속 한방병원 물리요법과

김 용 남

### A Study on Risk Factor Found in the Patients with Stroke in Physical Therapy

Kim, Yong Nam, R. P. T

*Dept. of Physical Therapy, Kyung Hee University Oriental Medical Hospital*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risk factor found in the patients with stroke in physical therapy.

A questionnaire survey was carried out for 130 the patients, who had comparatively alert mentality, hospitalized in kyung hee oriental medical hospital with stroke from January, 1st to May 31st, 1996.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The stroke patients 67(51.5%) were males and 63(48.5%) females. The age groups of 50 to 69 years accounted for 67.6% of the total stroke patients are the highest. The job groups of commerce and business of patients 58.5%. The living groups of major cities of the revealed the highest incidence(40.8%).
2. There were 40 patients(30.8%) who had hemorrhage related conditions as the direct cause of their stroke, and 90 patients(69.2%) who had cerebral infarction with no hemorrhaging as the cause. of the disease that the patients suffered from before their stroke, blood pressure related problems were most numerous 76 patients(58.5%) had such problems.
3. A month before their attack of stroke, were asked what they thought could become the causes of their strokes. The most frequently mentioned answers were fatigue, drinking too much, and smoking, as chosen by 45 patients(34.6%).
4. In regarding the relation between stress and stroke, (37.7%), of the surveyed belonged to the most numerous group had of people who said they were not under stress. Yet this group had a large number of parents. And 22.3% of the surveyed named conflicts

among parents, siblings, and relatives.

5. Questions were asked to find out the relationship between complications of stroke and smoking or drinking. It was surprising to see a high rate of attack among the 55.4% majority who answered that they did not smoke nor drink.
6. To sum up the affect of food on attack of stroke, 42.5% of the people who had a sprcey and salty diet had a higher rate of attack then the group of people with leisurely nature.
7. Looking at the family history, 40.4% of the patients said their parents also suffered the disease. This percentage is the highest. And 40.0% answered that there is no one who suffered in their family history. Judging from the percentages and family.

## 차 례

서 론  
 연구방법  
 조사대상 및 내용  
 조사방법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연구결과  
 고 찰  
 결 론  
 참고문헌

## 서 론

오늘날 뇌졸중 환자의 발병 빈도는 점차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심장병, 각종 압등 3대 사망원인의 하나로써<sup>2)</sup> 의학적으로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sup>7)</sup>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뇌혈관질환을 뇌졸중, 중풍, 뇌용혈, 반신불수등의 명칭으로 불러왔었다. 이러한 뇌혈관 질환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높은 치명률 뿐 아니라 사망하지 않더라도 사회생활에 복귀가 가능한 정도의 기능회복이 소수에 한정되어 있고 또 사회나 가정에 책임이 큰 40대에서 60대 사이에서 대부분 발병하고 있으며 갈수록 젊은 층으로 발병이 가속화 되고 있다. 뇌혈관 질환은 80년대 들어 가장 크게 우리들의 생명을 노리는 {국민병}으로 자리를 잡았다. 뇌혈관 질환이 단연 한국인 10대 사망원인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뇌혈관 질환

으로 인한 사망은 전체 질병 사망원인의 무려 20%를 넘고 있다.<sup>1)</sup>

뇌는 몸 전체 무게의 2%에 불과하다. 하지만 심장에서 분출되는 혈액의 15%와 몸 전체에서 필요로 하는 산소의 20%를 쓰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몸의 모든 행동과 기능을 다스리고 인간의 인간다움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장기이다. 뇌의 신경세포에는 핏줄이 그물같이 펼쳐있고 뇌의 정상적인 신진대사를 하려면 하루 72ℓ의 산소와 1백 50g의 포도당을 필요로 한다. 뇌혈관 질환은 흔히 뇌졸중(stroke)이라고도 하는 데 주요 뇌혈관의 파열로 인한 뇌출혈(cerebral hemorrhage)과 뇌의 어느 한 부분으로 통하는 혈관이 막혀서 나타나는 뇌혈관 폐쇄로 인한 경색증(cerebral infarction)을 들 수 있는데 혈액의 흐름이 방해받고 이로서 산소와 영양공급이 중단, 그 부분의 신경조직이 소생 불가능한 상태로 망가지고 마는 병을 통틀어서 지칭한다.<sup>8)</sup>

우리나라에서는 뇌경색증이 점차 증가하는 편이지만 歐美에 비해 아직도 뇌출혈의 빈도가 높은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sup>4)</sup> 이러한 뇌졸중 환자의 증상은 복합적으로 나타나며 가장 많은 손상은 운동 및 감각손상, 인지능력, 지각, 시각, 통화(communication), 연하, 배뇨와 통변의 결함등을 들 수 있으며, 더우기 운동손상으로 인한 약중, 불 균형, 운동실행, 관절운동의 제한, 연하곤란이나 늘어증(dysarthria), 실어증(aphasia) 등의 다양한 후유증이 나타나지만<sup>13)</sup> 대표적으로 편마비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편

마비란 신체의 한쪽이 마비되는 현상을 말하며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양식인 일상생활 동작의 영향과 사회적·경제적·정서적 상태는 물론 직업에도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그 환자의 삶에 있어서도 중요한 스트레스 요인이 된다.<sup>5, 9, 12)</sup>

우리나라는 198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산업화와 도시화가 가속화되고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의 증가, 환경오염, 후천성 장애자의 수가 증가하고 또한 의학 및 보건학 기술의 발달로 인한 평균수명의 연장과 출산율의 감소는 노령인구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어 만성·퇴행성·노인성질환의 증가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고 사망 및 질병 양상에 많은 변동을 일으켰다.<sup>3)</sup> 뇌혈관 질환은 단순한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는다. 이보다 많은 사람들이 어느날 갑자기 의식을 잃고 식물인간이 되는 가 하면 반신불수 등의 후유증으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노인의 인구가 늘어나는데의 원인도 있지만 이 보다는 고혈압, 동맥경화증을 비롯하여 당뇨병 등 이른바 성인병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풀이 했다. 그러면 이러한 성인병이 어떤 기전에 의해서 발병하는가? 즉 발병 1개월 전 직업적, 사회적으로 받았던 스트레스의 종류, 발병 전 앓고 있었던 질병의 무관심, 과로, 과음, 흡연여부 및 생활습관, 음식관계와 성격, 환경과 유전성(가족력)과도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이로 하여금 뇌졸중이 발병하였다면 발병률 정도의 파악과 관계요인들의 사전예방과 절제로써 악성신생물이며 우리나라 3대 사망원인의 하나인 뇌졸중 발병을 줄이고자 하는 데 본 연구를 수행 하였다.

## 연구방법

### 조사대상 및 내용

본 연구의 대상은 경희대학교 부속 한방병원에 입원하여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 뇌졸중 환

자들로 발병 전 관계요인들에 대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조사하였다.

1. 발병 1개월 전 직업적, 사회적으로 받았던 스트레스의 종류
2. 발병 전 앓고 있었던 질환
3. 과로·과음·흡연여부 및 생활습관
4. 음식관계 및 성격
5. 환경과 유전성(가족력)

### 조사방법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방법은 1996년 1월 초부터 5월 말까지 5개월 동안 본인이 작성한 설문서를 이용하여 본 병원에서 본인이 치료하고 있는 뇌졸중 환자 중 치료기간이 1개월 이상 되고 비교적 정신상태가 깨끗한 환자 130명을 직접 면담에 의하여 조사 하였다.

###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조사된 설문서를 응답내용의 변수를 측정하여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 연구결과

### 분석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분석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성별, 연령별 분포는 130명 중 남자가 67명(51.5%), 여자는 63명(48.5%)이 응답하였다. 성별로 응답률은 남자가 여자보다 다소 많았고 연령별로는 49세미만~70세 이상까지로 광범위 했으나 50세~69세의 연령층이 67.6%로 가장 많았다.

직업별로는 상업, 사업이 37명(28.5%), 공무원은 29명(22.3%), 무직 27명(20.8%), 기타직 23명(17.7%), 직장인 14명(10.8%)순으로 나타났다. 거주지별로는 대도시가 53명(40.8

%), 중 소도시는 40명(30.8%), 읍면지역은 23명(17.7%), 농어촌 산간지역은 14명(10.8%)순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도시의 인구집중과 비례해서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 되지만 도시의 환경이 농어촌 산간지역에 비해 발병률도 높은 것으로 해석 된다.

표 1 분석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특성 군별	N	%	
성 별	남 자	67	51.5
	여 자	63	48.5
	Total	130(100)	100.0
년 령	49세 미만	27	20.8
	50~59세	44	33.8
	60~69세	44	33.8
	70세 이상	15	11.5
	Total	130(100)	100.0
직 업 별	상업·사업	37	28.5
	공무원	29	22.3
	직장인	14	10.8
	기 타	23	17.7
	무	27	20.8
	Total	130(100)	100.0
거주지별	대 도시	53	40.8
	중 소 도시	40	30.8
	읍·면 지역	23	17.7
	농·어촌·산간	14	10.8
Total	130(100)	100.0	

### 뇌졸중 발병관계 질환

물리치료를 받는 뇌졸중 환자의 응답자 중 뇌출혈성인 환자는 40명(30.8%)였고, 뇌경색증(비출혈성 질환)환자는 90명(69.2%)으로 출혈성질환 보다 뇌혈관이 막혀서 오는 비출혈성 환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출혈성 질환인 혈전증, 색전증환자는 조사자 130명 중 한 명도 없었다.

발병 전 앓고 있었던 질환이나 치료를 받고 있던 질환이 있는지의 응답여부에서 혈압관계로 인한 질환이 130명 중 76명(58.5%)으로 가

장 많았고 당뇨병도 19명(14.6%)으로 뇌졸중 발병관계질환으로 상당부분을 차지 하였다(표 2).

표 2 뇌졸중 발병관계 질환

관 계 요 인	N	%	
질병의 종류	뇌출혈성	40	30.8
	뇌경색증	90	69.2
	혈전증	0	00.0
	색전증	0	00.0
Total	130(100)	100.0	
발병 전 앓고 있었던 질환	혈압관계	76	58.5
	당뇨병	19	14.6
	심장질환	5	3.8
	관상동맥질환	1	0
	기 타	13	10.0
	무	16	12.3
Total	130(100)	100.0	

### 발병 1개월 전 관계요인

뇌졸중 발병 1개월 전 본인이 발병관계요인이었다고 생각되는 질문에서는 표 3과 같다. 과로·과음·지나친 흡연이 34.6%로 가장 많았고, 스트레스로 인한 발병이 24.6%, 발병 전 앓고 있던 질환의 무관심에서 20.0% 순으로 나타났으나 의외로 나쁜 생활습관은 9.2%로 낮게 나타났다.

표 3 발병 1개월 전 관계요인

관 계 요 인	N	%
스트레스	32	24.6
과로·과음·흡연	45	34.6
앓고 있던 질환에 무관심	26	20.0
나쁜 생활습관	12	9.2
기 타	15	11.5
Total	130(100)	100.0

### 발병관계 스트레스의 종류

뇌졸중 발병과 스트레스와의 관련여부를 묻

는 질문에서 기타 군을 제외하고는 부모·형제·인척 간의 갈등이 22.3%로 응답하고, 사업관계와, 직장, 조직, 인간관계의 갈등에서 16.9%로 동등하게 나타났으며, 기타 무 군에서 37.7%로 응답하여 뇌졸중 발병관계 스트레스의 종류에서 사업·부채관계에 의한 스트레스 보다는 부모, 형제, 인척간의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표 4).

표 4 발병관계 스트레스의 종류

관계요인	N	%
사업관계	22	16.9
부채관계	6	4.6
부모·형제·인척 간의 갈등	29	22.3
직장·조직·인간관계의 갈등	22	16.9
부부 간의 갈등	2	1.5
기타·무	49	37.7
Total	130(100)	100.0

표 5 흡연 및 음주와의 관련여부

관계요인	N	%
피운다	47	36.2
안피운다	72	55.4
흡연여부 피우다 끊었다	9	6.9
피운지 얼마 안되었다	2	1.5
Total	130(100)	100.0
안 마신다	72	55.4
매일 마신다	20	15.4
음주여부 2~3일 마다	12	9.2
1주~10일	6	4.6
가끔 마신다	20	15.4
Total	130(100)	100.0

흡연 및 음주와의 관련여부

뇌졸중 발병요인과 흡연·음주여부에 대한 질문에서 안 피운다로 응답한 환자가 55.4%, 피운다는 환자는 36.2%, 피우다 끊었다는 환자는 6.9%, 피운지 얼마되지 않았다는 환자는 1.5% 순으로 나타났으며, 음주여부는 성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안 마신다가 55.4%로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였고 매일 마신다와 가끔 마신다는 환자는 15.4%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흡연과 음주를 하지않는 군에서 발병률이 높은 것을 보면 흡연, 음주는 뇌졸중 발병과 관련은 있으나 지나치지 않으면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표 5).

음식·성격과의 관계요인

뇌졸중 발병과 음식과의 관계에서 맵고 짜게 먹는 사람이 54명(42.5%)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싱겁게, 주로 채식, 주로 육식 순으로 나타나 맵고 짜게 먹는 사람이 싱겁게 먹는 사람보다 뇌졸중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격관계에서는 성격이 급한 사람이 51.5%로 완만하거나 잘 참고 느긋한 사람보다 뇌졸중에 걸린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보면 뇌졸중의 발병요인도 음식, 성격과도 많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표 6).

표 6 음식·성격과의 관계요인

관계요인	N	%
싱겁게	28	21.5
맵고 짜게	54	41.5
음식관계 주로 육식	15	11.5
주로 채식	20	15.4
주로 생선	7	5.4
잡식(기타)	6	4.6
Total	130(100)	100.0
급하다	67	51.5
화를 잘내는 편이다	9	6.9
성격관계 완만한 편이다	24	18.5
잘참고 느긋한 편이다	30	23.1
Total	130(100)	100.0

유전관계(가족력)

응답자 130명 중 뇌졸중도 가족력으로 보아 유전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가족 중 뇌졸중을 앓았거나, 앓다가 돌아 가신 분 중에

서 친정부모가 53명(40.8%)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또 가족 중에 아무도 없다는 응답자가 52명(40.0%)이었다. 친 조부모 12명(9.2%), 백숙부 3명(2.3%)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응답자수나 백분률, 가족력으로 보아 뇌졸중도 유전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표 7).

표 7 유전관계(가족력)

관계요인	N	%
친정부모	53	40.8
친형제	10	7.7
친조부모	12	9.2
백숙부	3	2.3
무	52	40.0
Total	130(100)	100.0

## 고찰

본 연구 수행은 경희의료원 한방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 뇌졸중환자 130명에 대한 발병관계요인을 조사분석 하였다.

조사하기 위한 연구도구는 설문서를 작성하여 치료기간이 1개월 이상 되고 비교적 정신상태가 깨끗한 뇌졸중환자를 직접면담에 의하여 조사하였다. 설문서는 본인이 뇌졸중환자 치료 전 평가 시에 발병요인에 대한 질문을 하면 자주 응답하는 사항들을 묶어 일반적 특성과 함께 각 12문항으로 세분화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문항 별로 사회과학 프로그램인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를 이용하여 통계처리 해서 각 문항 간의 응답자 수와 백분률에 의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설문환자 수가 적고 각 문항 간의 특성이 너무 일반적이며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변수를 제시하지 못한 점과 본인이 직접 면담에 의한 설문에 응답케 하였기 때문에 불분명한 응답은 근접한 쪽으로 기울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타 연구에서 뇌졸중에 대한 치료와 연구에 대해 발표한 논문과 자료들은

많았지만 발병관계요인이 의학적이고 학술적인 면만을 다루었고 일반적이고 일상생활과 관련된 면을 다룬 점들은 없었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하여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반적이면서도 중요한 뇌졸중 발병관계요인들을 부분적이거나 알아낼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연구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자 분포를 살펴보면 뇌졸중 환자 중 남자가 67명(51.5%), 여자가 63명(48.5%) 총 130명이 응답하여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다소 많았고 연령별로는 50~59세, 60~69세의 연령층에서 각 44명씩(33.8%)으로 가장 많았다.

직업별로는 상업·사업, (법조계·교육계·의료계)는 공무원으로, (경리직·관리직·영업직·금융직)은 직장인으로 묶어서 처리하였고, 다양한 직종과 농업, 어업, 임업 등은 기타직으로, 가사 및 주부는 무직으로 처리하였다. 이들 응답자 중 상업과 사업의 직종에서 37명(28.5%)으로 가장 많았다.

거주지 별로는 도시인과 농·어촌간의 환경적 차이에서 뇌졸중의 발병률이 어느곳이 높은가를 알아보려 하였으나 표 1에서 나타났듯이 대도시에서 발병률이 높게 나타났으나 상대적으로 대도시의 인구밀도가 높은 것을 감안할 때 농·어촌의 발병률도 적지만은 않았다. 이것은 도시의 인구집중과 비례해서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되며 도시의 환경이 농·어촌·산간지역에 비해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뇌졸중의 발병 관계질환의 원인으로 뇌출혈성과 뇌경색증, 혈전증, 색전증 등의 응답여부에 대해서는 혈전증과 색전증은 응답자 중 한명도 없었고 뇌혈관의 출혈성질환은 40명(30.8%), 비출혈성 질환인 뇌경색증은 90명(69.2%)으로 출혈성 보다 비출혈성 환자가 더 많았다.

뇌졸중의 발병 전 앓고 있었던 질병이나 치료를 받고 있는 질병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전체 응답자 중 58.5%가 고혈압이나 저혈

압으로 치료나 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당뇨병으로도 14.6%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를보면 혈압이나 당뇨병은 뇌졸중발병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러한 질병은 철저한 치료와 관리가 요구되는 것으로 상기하여야 할 것이다.

뇌졸중 발병 1개월 전 어떠한 관계요인에 의해서 발병되었는지를 묻는 질문에서 스트레스, 과로·과음·흡연, 발병 전 앓고 있었던 질환에 대한 무관심, 나쁜 생활습관 등을 조사하였으나 역시 과로·과음·흡연이 전체 34.6%, 스트레스가 24.6%로 뇌졸중 발병과 과로·과음·흡연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병 전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어떤 스트레스에 의해서 발병 되었는지 종류를 보면 사업관계, 부채관계, 부모·형제·인척간의 갈등, 직장·조직·인간관계의 갈등, 부부간의 갈등, 기타·무 등으로 설문을 하였더니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다는 군이 37.7%였고, 부모·형제간의 갈등이 22.3%였으나 만성적이고 지나친 스트레스가 아니면 뇌졸중 발병과의 관련성여부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현대의학에서 음주와 4대 혈관 부식제로 알려진 소금, 콜레스테롤, 담배<sup>1)</sup> 등과 뇌혈관장애와 뇌졸중 발병의 위험인자를 음주, 흡연, 당뇨병이 주요 요인이라고 조사한 바를 밝힌 바 있다.<sup>11)</sup> 이와같이 흡연과 음주여부와의 관계에서 안 피운다. 안 마신다라고 한 응답자가 전체 130명중 72명(55.4%)으로 음주, 흡연을 하는 환자군보다 하지않는 환자군에서 응답률이 높았다. 흔히 뇌졸중 발병요인을 위에서 주장한 바 음주, 흡연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했으나 본 연구에서 나타난 응답자 수 및 백분률로 볼 때 지나치지 않으면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였다.

음식, 성격과의 관계에서 현대인들은 싱겁게 먹는다고는 하나 우리나라 음식이 주로 맵고 짜게 먹는 습관이 오래 전부터 이어져왔기 때문에 혈관 부식제의 하나인 자극성이 높은 소

금을 지나치게 먹는 사람이 많다. 본 연구에서 음식과 뇌졸중 발병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에서 맵고 짜게 먹는 사람이 45.5%로 가장 많이 응답하여 싱겁게 먹는 사람보다 뇌졸중 발병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격관계에서도 성격이 급한 사람이 완만하거나 느긋한 사람보다 뇌혈관장애(뇌졸중)의 확률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6 참조).

뇌졸중도 유전관계가 있는지 여부에서 가족력으로 보아 친정부모가 전체 130명 중 53명(40.8%)으로 가장 많았고 가족 중에 아무도 없었다는 응답자도 52명(40.0%)이었다. 지금까지 선천적으로 고혈압 및 심장질환, 선천성 질환이 뇌혈관 장애를 일으킨다는 연구 보고는 있었으나 뇌졸중의 유전성 관련여부는 학계에 조사연구 및 보고 된 바 없다. 여기에서 응답률로 볼 때 뇌졸중도 유전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뇌졸중은 현대 성인병 중 가장 우려하는 질병이며, 악성신생물이며, 3대 사망원인 중의 하나인 질환으로 의학적,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이며 발병되었다면 치명률뿐 아니라 사회생활 복귀가능이 한정되어 있고 사회나 가정에 책임이 큰 나이에서 발병률이 높고 갈수록 젊은층으로 가속화 되는 질환으로 위의 관계요인들을 충분히 파악하여 사전예방과 절제, 자제 등으로 발병되는 뇌졸중을 줄여야 할 것이다.

## 결 론

경희의료원 한방병원에 입원하여 물리치료를 받고있는 뇌졸중환자 130명을 대상으로 발병 관계요인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얻었다.

- 1) 일반적 특성 중 성별로는 남자 67명(51.5%), 여자 63명(48.5%)이며, 발병 연령은 50세~69세의 연령층에서 61.6%로 가장 많았고, 직업별로는 상업·사업이 37명(28.5%), 거주지별로는 대도시에서 53명

(40.8%)으로 발병률이 가장 높았다.

- 2) 뇌졸중 발병관계질환으로 출혈성이 40명 (30.8%), 비출혈성인 뇌경색증이 90명 (69.2%)이었고, 발병 전 앓고있던 질환으로는 혈압관계질환이 76명(58.5%)으로 가장 많았다.
- 3) 뇌졸중 발병1개월 전 본인이 발병관계요인이었다고 생각되는 질문에서 과로, 과음, 흡연 등이었다고 응답한 환자가 45명 (34.6%)으로 가장 많았다.
- 4) 뇌졸중 발병과 스트레스와의 관련성여부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다는 군이 37.7%로 제일 많았는데도 발병률이 높았고, 부모, 형제, 인척간의 갈등이 22.3%였다.
- 5) 흡연, 음주와 뇌혈관질환의 관련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에서 안 피운다. 안 마신다라고 응답한 환자가 전체 55.4%로 흡연, 음주를 하지 않는다는 군에서 의외로 발병률이 높았다.
- 6) 뇌졸중 발병과 음식과의 관계에서 맵고 짜게 먹는 사람이 42.5%로 싱겁게 먹는 사람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성격관계에서도 급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느긋하고 완만한 사람보다 뇌졸중 발병률이 높았다.
- 7) 유전관계여부에서 가족력으로 보아 친정 부모가 전체 40.8%로 가장 많았고 가족중에 아무도 없었다는 응답률도 40.0%였다. 여기에서 응답률이나 가족력으로 볼 때 뇌졸중도 유전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연구를 종합해 보면 급속한 경제성장과 산업화, 생활수준의 향상 등으로 과로, 스트레스, 운동부족, 식생활의 변화등과 노인의증가로 성인병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성인병중 뇌졸중은 우리들의 생명을 노리는 국민병으로 자리잡고 사회적으로 문제시 되는 질환이며 학술적인 연구 뿐 아니라 일반적이고 일상생활과 관련된 발병제거요인들을 개발하고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연구가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1. 권희규, 오정희 : 뇌졸중의 임상적 연구, 대한재활의학회지, 제8권제2호, pp. 83~91, 1984.
2. 고영진, 양승환, 박경의, 안용팔 : 편마비 환자에서 Ambulater를 이용한 보행훈련의 효과. 대한물리치료사학회지. 11.2.22. 1987.
3. 김일순, 이동우 : 최근 한국인의 사망력의 경향에 관한 고찰, 예방의학회지 2권 1호, 1969.
4. 김진호, 한태윤 : 재활의학, 서울 : 삼화출판사. 1995.
5. 박원경 : 뇌졸중으로 인한 환자가 지각한 스트레스와 우울에 관한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대 대학원. 1988.
6. 선우이남, 김남규 : 뇌혈관 질환, 상편 한국일보, 1.29, 1986.
7. 오경환, 정진우 : 편마비환자의 물리치료, 서울 : 대학서림. 1990.
8. 이상복 : 뇌졸중 예방과 예후, 대한의학협회지, 제28권 4호 pp.337~34, 1985.
9. 이정민 : 뇌졸중환자의 재활과정에 따른 스트레스 변화와 양상,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1994.
10. Donahue RD, Abbott RD, Reed DM and Yano K : Alcohol and hemorrhagic stroke JAMA 255, 2311-2314, 1986.
11. Hillbom M and Kaste M : Ethanol in toxication; A risk factors for ischemic brain infarction in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stroke, 12 : 422-425, 1981.
12. Paytom .O .D : Manual of physical therapy. New York : Churchill Livingstone, pp. 291~307, 1989.
13. Rusk, H. A. : Rehabilitation medicine, The C. V. Mosby Company, Fourth edition, pp. 601~620, 1977.